



고려시대, 이 시기 문학은 한문학의 전성기이다.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시대, 당시의 충북 대표 문인으로
시조문학의 효시인 우탁이 있다.

이후 조선시대, 이 시기 문학은 국문학의 형성기이다.

훈민정음의 창제로 진정한 의미의 국문학이 형성되어진 시기로
당시의 충북 대표 문인으로 현실 초월적인 삶의 대학자, 옥소 권섭과
17세기 최고의 문인 김득신이 있다.

주역을 최초로 해독한 역동선생(易東先生), 우탁

성리학의 선구자인 동시에 시조문학의 효시인 탄로가의 저자
'역동선생(易東先生)'이라 불리우며 문과에 급제, 영해사록(寧海司錄)이 되어
민심을 현혹한 요신(妖神)의 사당(祠堂)을 철폐



1308년(충선왕 즉위년) 감찰규정(監察糾正) 때 충선왕이 숙창원비(淑昌院妃)와 밀통한 것을 알고 이를 극간한 뒤 벼슬을 내놓았으며, 충숙왕이 그 충의를 가상히 여기고 누차 불렀으나, 사퇴하고 학문에 정진하였다.

뒤에 성균좌주(成均祭酒)를 지내다가 치사(致仕)하였고, 당시 원나라를 통해 들어온 정주학(程朱學) 서적을 처음으로 해독, 이를 후진에게 가르쳤으며, 경사(經史)와 역학(易學)에 통달하였다.

우탁을 제향하는 역동서원은 1696년(숙종 22년) 안동군 월곡면 송천동에 창건되었으나, 1991년 안동대학교가 명륜동에서 송천동으로 이전하면서 역동서원이 교내에 위치하게 되었다. 충북 단양군 대강면에 있는 사인암은 그의 행적 때문에 지어진 기암절벽으로 유명하다.

01 역동선생, 우탁의 출생

단산현 신원리(현재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에서 우천규의 아들로 태어난 우탁의 본관은 단양(丹陽). 자는 천장(天章), 탁보(卓甫, 卓夫), 호는 단암(丹巖), 백운(白雲)이다. 주역을 최초로 해독하였기에 역동선생(易東先生)이라고도 하였다.

어릴 적부터 성격이 곧아서 자기 주장을 분명히 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당사자가 어른일지라도 꼭 짚고 넘어가는 올곧음이 있었다. 어린 소년의 학문에 대한 집념이 얼마나 강했고 거기서 우러난 행동 거지가 얼마나 밝았는지 이미 학자의 학식과 군자의 품성을 갖췄다고 하여 과거에나 합격해야 주어지는 진사라는 벼슬 칭호를 15세 난 어린 소년에게 붙여 주었다.



02 민간신앙을 타파한 유학자

우탁은 1278년(충렬왕 4) 향공진사(鄉貢進仕)가 되었으며, 만 27세 되던 해인 129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처음 벼슬로 사록이라는 관직을 받고 지금의 경북 영덕군에 있던 영해라는 곳으로 부임하였다.

부임해 보니 이곳에 팔령이라고 이름하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사당이 있어 주민들이 이 영험을 믿고 팔령신을 극진히 모시고 있었다. 팔령신(八鈴神)이란 이름 그대로 여덟의 방울신을 일컫는데 이들에게 재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화를 입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얽매어 힘겹게 재물을 바쳐야 하는 주민들의 폐해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유학에서는 민간신앙인 이러한 미신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철저한 유학자인 우탁이 이를 그냥 둘 리 없었다. 『고려사』 열전에 전하기를 그 지방 사람들이 팔령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방울을 부수어 바다에 던졌다고 한다. 이처럼 우탁은 유학에서 인정하지 않는 민간신앙의 음사를 타파하는데 아주 강경하였다.

03 충심의 지부상소(持斧上疏)와 탄로가

1308년(충선왕 즉위) 감찰규정(監察糾正)으로 있을 때, 충선왕이 선왕의 후비인 숙창원비(淑昌院妃)와 간통하자 백의를 입고 도끼를 메고 들어가 죽음을 무릅쓰고 상소를 올렸다. 그 후 관직에서 물러나 안동의 예안에서 학문에 전념하며 늙음에 대한 회한을 주제로 시조 『탄로가(嘆老歌)』를 지었다. 특히 사인 벼슬에 있을 때 단양팔경 중 하나인 사인암을 즐겨 찾아 청유하였기에 조선시대 성종 때 임재광 단양군수가 이곳을 우탁 선생의 벼슬을 따서 ‘사인암’으로 명명하였다. 이곳에는 우탁 선생의 기적비가 있으며, 고향인 적성면 현곡리에 태지비와 사적비가 건립되어 있다.



우탁선생의 벼슬을 따서 명명한 ‘사인암’

사인암과 우탁선생의 기적비

04 후진교육과 개혁에 힘쓴 역동선생

고려에 주자학을 안향이 처음으로 도입하였는데, 우탁선생은 안향의 빼어난 제자 중 하나였으며, 특히 스승을 통해 전수받은 게 아니라 책에 의지하여 스스로 깨우쳐 이를 두고 사람들이 역(易)이 동(東)으로 옮겨졌다 하며 훗날 우탁을 역동선생(易東先生)으로 부르게 되었다. 그는 여말 흐트러진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고자 유학의 도를 내세우며 역학 연구와 후진교육과 개혁에 힘썼으며, 역동(易東)이란 호를 받을 정도로 유학사에서 당대와 후대에 끼친 영향력이 지대했다.

조선조 퇴계 이황(李滉)의 발의로 1570년(선조 3) 예안에 역동서원(易東書院)이 창건되었으나, 1871년(고종 8)에 훼손당하였다가 1966년 복원되었다. 저서로 『초학계몽편(初學啓蒙編)』, 『도수편(徒酬編)』, 『역론(易論)』, 『역설(易說)』, 『가례요정편(家禮要精編)』 등이 저서가 있었으나 화재로 소실 되었다고 한다. 시조 2수와 몇 편의 시가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역동서원의 창건인물

역동서원 현재 _안동시 송천동 안동대학교 구내

작가연보

- 1262** 고려 원종 4년 단산현 신원리(현 단양군 적성면 현곡리)에서 우천규의 아들로 태어남
- 1278** 고려 충렬왕 4년 17세 : 어린 나이로 향공진사(鄉貢進士)가 되고, 홍문관 수찬(弘文館 修撰)에 임명
- 1290** 고려 충렬왕 16년 29세 : 과거 급제(문과, 병과)
- 1291** 고려 충렬왕 17년 30세 : 영해사록(寧海司錄, 현 영덕군 지방관)에 임명, 내직인 시인(舍人) 벼슬에 임명
- 1308** 고려 충선왕 1년 47세 : 감찰규정(監察糾正)에 제직시 충선왕의 폐륜 행위(부왕의 후궁과 가까이 지낸 일)를 직간하는 지부상소(持斧上消)를 올림 / 진현관(進賢館) 직제학(直提學)에 임명 / 성균관 제주(중 3품)로 승진
작자가 분명한 작품으로서 가장 오래된 시조 탄로가(嘆老歌) 지음
- 1342** 고려 충혜왕 복위 3년 81세 : 81세를 일기로 예안현(안동군 회룡면 선양동 - 안동댐 건설로 수몰됨)에서 작고.